인권정보자료실
M1.13

여성주의 저널 <일다> 창간 1주년 기념 토론회

'여성주의 언론의 가능성'

일시: 2004년 4월 29일 2시

장소: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교육장

www.ildaro.com

순 서

I 창간 1년, <일다>의 출발과 현재

여성주의 언론의 가능성 (조이여울/ <일다> 편집장)

I'여성언론'으로서의 <일다>

(유선영-한국언론재단 정책연구팀 연구위원)

I 여성계에 미친 <일다>의 영향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소수자 여성과 <일다> (박영희/ 다담연대, 장애여성공감 대표)

I 여성학적 의미, 새로운 관점

'일다'의 여성주의적 의미 (조순경/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I 진보진영이 본 새로운 '여성주의'

'진보'와 <일다>의 '접합적 여성주의'(?)의 가능성 (이종태/ 월간 '말' 편집부장)

I '여성주의가 인권이다'

<일다> 속에 성적 소수자의 물결이 일다!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부대표, 웹진 <eBUDDY> 편집위원)

<일다>에 가면 소수자의 시선을 배운다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I 독자평가

독자들이 말하는 <일다> (문이정민/ <일다> 기자)

I 자유토론

여성주의 언론의 가능성

조이여울 /여성주의 저널 <일다> 편집장

여성주의 저널리즘

여성주의 언론은 왜 필요한가. 기존 언론들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비중 있게, 가치 있는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여성을 '우리'가 아닌 '그들'로 바라보며, 여성 이슈들이 '선정적'으로 보일 때만 주목한다. 사회적으로 평가절하 당하는, 즉 별 볼일 없는 여성들의 경험과 느낌, 욕구와 목소리에는 무관심하다.

언론의 기능은 사람들의 눈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언론이 그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인권의 사각지대'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소외된 사람들의 시선은 언론도 소외시킨다. 대신 여성과 소수자에 대해 기존 통념대로 '규정'을 한다. 성 역할 모델, 모성 이데올로기,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시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등 언론이 앞장서서 차별을 강화한다.

언론은 공정하지 않다. 언론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주의 언론이 필요하다. 즉 여성주의 언론의 기능은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언론이 소외시켜왔던 사람들의 시각을 담는 것, 그것은 새로운 관점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따라서 여성주의 언론의 생명은 '관점'이다. 사회에서 한 번도 주목 받지 못했던 여성과 소수자의 관점. 그러한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여성과 소수자의 시선에 맞추어 보았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는 이러한 언론관을 가지고 출발했다. 1년 전 창간사를 통해 밝혔던 일다의 창간 정신은 다음과 같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를 창간하며

-새로운 여성들의 역사를 써나갑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는 아직도 묻혀있습니다. 여성들의 의지와 욕구는 무시되거나 왜곡되어 왔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여성들의 목소리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사는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읽어내고 반영해줄 매체가 필요합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는 어떤 매체도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의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 새로운 이

슈를 발굴하고 사회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소수자의 편에 서서 인권을 말합니다.
'일다'가 추구하는 여성주의는 여성과 소수자의 편에 서서 사회의 차별과 억압에 대항하고 인권과 평화를 지켜내는 모든 행동을 포함합니다. 우리 사회의 '인권' 개념에서 여성과 소수자들은 제외돼왔습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는 기득권이 아닌 소수자의 시선을 견지하며 사회를 바라보는 인권전문매체로 성장하겠습니다.

-다양하고 발전적인 여성주의 담론을 만듭니다.
여성주의에 성역은 없습니다. 여성주의 담론은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등한 사회를 원하는 이들 모두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비판과 성찰이 없이 발전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는 독자들과 함께 논쟁적이고 발전적인 여성주의 담론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획일화된 방식으로 여성문화를 바라보던 것에서 한 발 나아가 여러 개의 대안을 제시하는 여성주의 문화담론을 형성해나갈 것입니다.

-민주적인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성장합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의 관점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경력을 불문하고 누구나 '일다'의 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삶 속에서 잡아낸 경험들을 풀어내고자 하는 분이라면 유명세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견 개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다'의 재정은 독자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통해 마련됩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는 독자들과 함께 소통하며 꾸려나가겠습니다.

일다의 이슈들

여성정치세력화의 전략 - 일다가 제기한 이슈 중 단연 주목을 끌었던 것은 '여성정치세력화'에 대한 관점이다. 2003년, 진보언론을 필두로 불거진 '박근혜 지지론'이라는 왜곡된 '여성정치세력화' 논의에 전면 반기를 들고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방향을 제시했다.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 그리고 몇몇 여성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이 '여성정치세력화'가 아님을 지적하고, 여성의 정치적 소외를 극복하고 기성 정치구조의 가부장성을 깨나가는 '새판짜기'의 전략들을 담아냈던 <일다>의 기사들은 독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여성정치세력화를 둘러싼 수많은 장벽과 차별을 드러내야 하는 책임을 뒤로한 채 몇몇 여성정치인 내세우기 식의 보도로 '여성정치'를 논하는 기성언론의

관점 없는 보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여성운동 어떤 방향으로? – 여성주의 언론의 역할은 여성운동을 지지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넘어, 여성운동에 대한 평가와 방향제시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일다는 여성언론이 여성운동에 대해 '선심성' 기사를 써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벗고, 여성운동과 여성계의 행보에 대해 메스를 들이대기도 했다.

특히 '누구를 위한 호주제 폐지인가', '여성국회보내기 운동 방향타 돌려야', '여성단체장 정치진출의 파장은?', '여성평화운동의 모성담론 한계' 등의 기사를 통해 여성운동의 방향에 대해 진단,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앞으로도 <일다>가 끈질기게 잡아나갈 주제의식이기도 하다.

가족주의에 반기를 들다 – '효를 버려라!'라는 제목의 기사로 출발을 알린 <일다>는 '스위트홈' 신화 뒤에 가려진 가족 내의 불합리함에 주목했다. '가족 안팎으로 아프다', '평화로운 이혼을 하자', '감추어진 부엌' 등 성 역할 이데올로기와 여성의 노동력을 전제로 작동되는 '가족'의 억압적 현실을 드러냈다.

또 '정상가족' 밖에 존재하는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도전했다. 호주제, 출산장려정책, 건강가족기본법, 부부의 날 제정 등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정상가족 만들기' 식 정책에 반기를 들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조망하고 그러한 변화를 법이 반영하도록 새로운 관점과 방식을 제시했다.

소수자의 시선 – 소외되어온 성소수자, 장애여성,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건드렸던 것은 <일다>의 중요한 역할이다. 단지 소수자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았을 때 어떤 문제들이 지적되는지, 어떤 세계관을 갖게 되는지에 접근하려고 노력했다.

이 같은 관점은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과 소수자들의 '다른' 목소리, 기존 '인권' 개념에서 소외된 여성문제, 정치적 이념이 아닌 평화와 인권의 관점으로 북한주민의 삶 조명, 새만금 간척사업과 여성들의 갯살림,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사회운동권과 진보지식인 진영의 가부장적인 태도 고발 등과도 일맥상통하다.

일다 1주년, 이후

1년 동안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해온 것 같지만,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더 많다. 인권전문매체라고 하기엔 다양한 인권사안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족하고, 아무리 '관점'으로 승부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발로 뛰는 기사들이 부족하다는 점도 한

계로 드러났다. 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일다>를 성장시키기 위해선, <일다>의 시스템이 변화되어야 한다.

인터넷 매체로 1년을 버텨온 것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최근에도 <일다>는 존폐위기에서 '폐간'을 결정하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매체를 독자들의 후원금을 통해 운영을 해왔다는 것은 놀랍기도 하고, 그만큼 불안하기도 한 일이다. 돈이 없는 매체가 어떻게 인력을 활용할 것인가는 <일다>가 1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고민해왔던 바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최대 과제다. 또한 그 과제의 한 축은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 <일다>만큼 독자들의 애정을 듬뿍 받으며 성장한 매체도 드물다. 그것이 일다가 마땅한 자금력이 없는 비주류 언론이면서도 1년을 살아왔고 '이슈'를 생산해 올 수 있었던 버팀목이자, '1주년 이후'를 내다보게 되는 동력이다. 일다는 앞으로 독자들과의 소통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면서, 독자들의 자리를 넓혀갈 계획이다. 일다가 독자들의 기대대로 여성주의 관점을 잃지 않고, 사회의 흐름에 맞는 발전적인 여성주의 담론을 만들고,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려 노력한다면 앞으로의 1년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소수자 여성과 '일다'

박영희 /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 장애여성 공감 대표

<일다>의 한살 생일을 축하하며

여성주의 저널 '일다'의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일다와 다닮연대는 준비시기도 비슷했고 여성주의 안에서도 소수자의 시각을 견지한다는 공통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 든든한 동지이며 같이 성장해가는 친구라는 생각이 든다. 일년 전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걱정 속에 창간을 준비하던 일다는 초기에 오프라인잡지에서 온라인으로 선회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열정적인 필진들의 노력과 성실한 운영으로 페미니스트뿐만 아니라 여성이슈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대형 포탈 사이트 뉴스 검색에서 <일다>의 기사를 만날 때면 반갑고 자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고생스러웠을 <일다> 친구 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못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다. 오늘의 간담회는 <일다>의 일년을 돌아보며 정리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세워나가는 일을 주변의 여성주의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일다>의 이러한 치열하지만 열린 마인드가 바로 <일다>를 키웠고 앞으로도 성장시킬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의 초대가 더욱 감사하다.

<일다>의 이야기, <일다>의 시선

<일다>에서는 정치경제사회 전 영역의 사건과 정책을 여성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부터 문화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문화읽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한국여성뮤지션 재조명 시리즈' 등),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젠더관점이 전무한 언론에 대한 예리한 칼날을 들이대는 언론비평, 그리고 소수자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일까지 다양한 기사들을 쉼 없이 쏟아내고 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바쁜 일정 속에 매번 모든 기사들을 읽고 활발하게 독자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는 점이 아쉬울 정도다. 각자의 관심분야를 가진 기자들의 성실한 취재와 자료조사, 그리고 핵심을 짚는 거침없는 글들은 많은 정보를 주고 또 그냥 지나치던 일상속의 이야기들을 돌아보게 만든다.

성역이 없는 <일다>의 비판

내용 없고 방향성 없는 '여성정치세력화'에 일침을 놓은 <일다>의 기사들 ('여성정치세력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정치' '손짓만 하면 가나

- 이오경숙 전 여연대표, 열린우리당 행보' 등) 은 여성운동 진영을 스스로 돌아보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여성단체에 대한 비판은 어떤 매체에서도 쉽게 진행하지 못할 주제이고 또 섣불리 외부에서 훈수를 둘 문제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운동진영 내부의 사람들을 엮어주고 비판과 소통을 가능케 할 통로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때로는 우리끼리 서로 지지하고 도와서 여성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꼭 필요한 비판도 주저하고 덮어주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라고 믿기도 했다. 하지만 비판과 견제 없이 우리의 운동이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또한 모순이다. 우리가 여성으로서 함께 할 일은 적극적으로 연대하되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질 때 사심 없이 논쟁하고 비판할 수 있을 때 결국 우리를 성장시킬 것이며 더 많은 여성들과 함께할 수 있을 것임을 <일다>는 끊임없이 주지시킨다. 그리고 이런 비판의 통로가 생생하게 살아있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같이 가는 미래가 보일 것이다.

소수자여성들에게 든든한 일다

사회에서는 아직 소수자 여성의 목소리는 기사꺼리가 되지 못한다. 3.8 무지개시위, 여성장애인성매매연대 발족식, 장애여성의 날 등 다닮연대와 연대단체들이 진행하거나 같이 준비한 크고 작은 행사들은 그 의미와는 상관없이 매체들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일다>에서만은 관련 기사를 읽을 수 있다. 소수자운동의 입장과 시각을 가장 잘 정리해서 보도하는 <일다>를 보며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정리하고 다른 독자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작은 단체들에게 도움이 된다.

특히 소수자여성들이 매체에서 보도될 때 원래 의도가 왜곡되거나(실제로 최근 표지를 촬영한 ***이라는 여성지에서는 미리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날개를 단 듯한 사진을 실어 장애여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강화하기도 했다)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당하기 쉬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일다>의 기자들은 기자가 취재원과 맺는 관계에 있어서 최대한 취재원을 배려하고 보도 태도에 있어서도 최대한 말하는 사람의 의견을 잘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많았다. 또한 이름 높은 사람 중심의 취재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부분에 대한 관심이 각별한 것이 <일다>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다닮연대의 활동이 <일다>의 기사에서 비판적으로 다루어진 적은 없다. 소수자 여성의 이야기는 아직까지 그것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려는 기사가 많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소수자단체의 활동이 <일다>의 비판을 피해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일다>와 다닮이 서

로의 입장 차이를 발견하고 치열한 논쟁을 펼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아니 와야만 한다. 다닮의 활동에 문제가 있다면 일다가 서슴없이 그 예리한 칼날로 비판을 가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매애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일다>에게 아쉽다

아직까지는 독자의견이 활발하지 못한 면과 독자의견게시판을 더럽히는 일부 남성들이 아쉽기는 하다. 독자의견란을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개선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일다>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펼치는 독자들이 아직까지는 이십대의 젊은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일다>와 정신을 공유하는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출신의 여성주의자들과 <일다>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자면 장애여성들의 참여도 많아야 할 텐데 아직까지는 비장애여성들의 기사와 답변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언젠가는 장애여성들이 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를 가시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공감과 다닮도 노력해야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일다> 호프에 너무나 가고 싶은데 장소가 계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접근성이 높은 일일호프 장소를 찾는다는 것이 서울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가고 싶어도 못가는 장애여성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아쉽다.

그 여자들의 물결, 잔잔하게 일어 거대한 가부장제 바위를 깎기를!

아무리 열정적이고 훌륭한 필진이 포진해 있다 해도 이 많은 기자들과 소통하고 때로 독려하여 아이디어를 내고 기조를 정리하여 저널을 꾸려가는 편집장의 노력이 대단할 것이라는 추측도 해본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좋은 <일다>를 같이 만들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그 수고로움을 공감하고 싶다. 그리고 생각하기도 두려운 재정상황을 타개할만한 방법을 이 자리에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결국 가장 힘없는 소수자여성들이 힘을 갖기 위해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일다>에서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소수자여성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주고 있는 일다와 함께 성장할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성장했으면 싶다.

<일다>의 여성주의적 의미

조순경/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여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온갖 지표들이 신문 지면과 방송 시간을 채우는 시점에서, 여성주의 저널 <일다>는 성 평등의 시대는 오지 않았다고,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름 없는 여성들의 삶을 보라고, 우리 사회가 비정상이라고 딱지 붙이고, 일탈시 해 온 여성들과 소수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라고 요구한다. 성 평등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환상을 벗으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생산과 유통은 여성주의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문제, 새로운 물음 만들어내기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도 아래에서 남성이라는 한 성(性)의 제한된 경험은 '완전한 인간'의 경험으로 그 정당성을 얻어왔다. 그리고 그 경험을 인정하고 공유하지 않는 인간은 불완전하거나 일탈적인 인간으로 간주되어 왔다. 현실은 명명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지배 집단의 인식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왔으며, 그러한 현실 속에서 여성, 그리고 여성과 남성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험은 드러날 수 없었고,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

<일다>는 이들의 경험을 드러내고 그들의 소리를 들리게 하는 역할을 해 왔다. 우리 사회에서 그 존재조차 부정당하고 있는 성적 소수자, 여성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억압받는 위치에 있다고 간주되고 있는 성적 소수자의 문제를 주요한 이슈로 삼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일다>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여성학과 여성주의의 일차적 과제 가운데 하나는 '여성문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문제는 발견되는 것이기 보다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성차별과 무관해 보이는 문제의 여성주의화 과정은 곧 여성학과 여성운동의 역사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부 강간이 100년 전에는 전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이 지금은 주요한 '문제'로 존재하게 된 것, 전쟁과 군사주의의 문제가 '여성문제'가 된 것은 남성중심의 지식 체계에 대한 부단한 도전의 결과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실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가부장적 지식 체계에 대한 도전은 여성주의 지식의 생산자의

주요한 역할이었다. 여성학과 여성주의 언론, 그리고 여성운동이 그 주요한 축을 이룬다. 지난 1년간 <일다>가 해 왔던 역할이다.

이러한 여성주의적 문제의 발굴을 위해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실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낯설게 하는 과정, 그리고 지배적인 통념과 사고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물음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필요로 한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가? 왜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가? 이혼의 경제적 비용은 얼마인가? 모유가 아이에게 얼마나 좋은가? 여성주의는 이러한 물음을 던지지 않는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는 다른 물음들을 던진다. 이혼을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잘 할 수 있는가? 왜 낮은 출산율이 문제가 되는가? <일다>는 기존의 남성 중심의 주류 언론들에서 에서 던지지 못했거나, 꺼려했던 질문들을 던진다. 다른 여성 언론들에서 여성 정치 세력화 운동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정계에 진출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 <일다>는 그러한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방향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정상 가족'의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여성들의 입장에서 가족 개념을 그대로 담은 민법 개정안이 얼마나 억압적일 수 있는가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러한 물음의 방식이나 의제의 설정 모두 주변화 된 여성, 소수자의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다.

어떠한 물음을 묻는가의 문제만큼 여성주의에서 민감하게 다루는 것은,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묻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성주의에서는 여성운동을 부르조아 엘리뜨 운동으로 동일시하는 남성에게 한국의 여성운동의 문제와 방향에 대해 묻지 않는다. <일다>는 이러한 물음의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 던지기와 문제제기는 가부장적 지식체계, 엘리뜨 중심의 여성운동, 권력화 되고 제도화 되어가는 여성운동에 대한 도전하는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다.

참여와 실천에서 얻어지는 여성주의 관점

역설적이게도 <일다>의 힘은 '배제됨' 자체에서 온다. 주변화 되고 배제 당한다는 사실 자체가 여성주의 관점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여성주의 관점에서 의미하는 '관점'은 아무런 실천의 과정 없이 관념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다르게 읽을 수 있는 시선과 관점은 주변화 되고 소외된

현재의 상태를 바꾸고자 하는 지난한 싸움의 과정, 정치적 투쟁의 과정을 통해 어렵게 얻어지는 것이다.

여성주의 관점은 온갖 유명한 여성학 이론서를 독파한다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여성주의 지식을 습득한다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여성주의관점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배제된 여성들의 구체적 경험, 억압과 고통의 경험에 대한 성찰의 과정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저항의 과정에서 힘들게 얻어지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를 태워 재가 되어버릴 것과 같은 모험의 과정, 싸늘한 고립의 공포, 이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일다>의 기자들은 수년간의 준비로 언론고시를 보고 기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구체적으로 여성으로서, 소수자로서의 차별과 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그러한 차별과 폭력의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고민하고, 그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쓰는 기사에는 기자의 구체적인 고민이 녹아있고, 관심이 묻어있고, 때로는 분노와 고통스러움이 배어있다. 그들은 그들의 기사 속의 사람들을 대상화시키지 않는다.

<일다>의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원칙은 강우진경 기자를 통해 들어본다. 강우 기자에게 그 "세 가지 원칙의 하나는 참여하지 않는 기사는 쓰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이 고민한 부분을 쓴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쓴다는 것"이다.[1] <일다> 기자진의 기자교육을 통해 강조된 이러한 기사 작성 원칙이 다른 언론들의 그것과 다른 점은 앞의 두 가지 원칙들. 참여와 고민 없이 쓰지 않는 것이다. 이는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쓰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이 세 가지 기사 작성 원칙은 여성주의 지식 생산의 원칙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일다>의 기사들이 다른 언론에서의 여성관련 기사에 비해 분석적이고 전문적인 이유는 이러한 기사 작성 원칙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강고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 스스로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들 스스로의 경험을 왜곡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험에 깊숙이 참여하지 않은 채 그들의 경험과 거리를 두고, 그들을 대상화한 채 쓰는 기사는 더욱 더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1) 송민성,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는 여성주의자," [대학내일] 218호.

여성주의적 객관성과 공정성

여성주의는 전통적 저널리즘에서 강조하는 실증주의적 객관성이 허구적이며, 기존의 가부장적 지식을 재생산하는 도구라는 이유로 거부한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지식은 특정한 사회 정치적 맥락과 배경, 그리고 지식 생산자의 관심과 이해와 가치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순수하게 중립적인 위치, 어떠한 가치에도 오염되지 않은 지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가치중립성'과 '객관성'은 하나의 지식의 사회적 맥락성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라고 본다.[2)]

여성주의에서는 가치중립성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가치중립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모든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나 관습, 지배적인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사상적, 문화적 진공 상태에서 살 수 있는 인간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아무리 '중립적인' 사람이라 할 라도 자신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사회화된 방식에 따라 특정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보유하게 된다. 가부장적 사회 구성원 중 어느 누구도 가부장적 문화나 관습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그 가부장제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익을 얻는 집단은, 각고의 자기 성찰 과정이 없는 한 가부장적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게 된다. 가부장

---

2) 우리가 익숙한 전통적 실증주의 과학관에서는 모든 종류의 선입견, 편견, 그리고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물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객관적' 관찰을 통해서만 '과학적'지식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과학'은 인간의 감각으로 인지된, 순수한 증거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과학자/연구자의 주관적 요소, 편견이 개입되지 않은 관찰을 통해서만 객관적 자료가 얻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과학자의 역할은 자신과 분리되어, "저 밖에(out there)" 존재하는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법칙성(자연법칙 또는 사회법칙)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러한 '객관적' 관찰을 통해 얻어진 '과학적' 지식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시하는 것은 과학자의 이해, 관심 등과 같은 주관적 요인이 배제된 가치중립성을 지키는 일이다. 이미 가치나 주관, 입장이 개입되면 그것은 '객관적'일 수 없고 '과학적'일 수 없는 것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객관적 지식'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것이어야 하며, 여기에 어떠한 가치관이나 특정 계층, 계급, 성별의 시각이 개입된다면 그것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성주의 학자들은 이러한 과학관이 남성중심적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이러한 과학의 가치중립성은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첫째, 실증주의에서 주장하는, 기존의 가치나 이데올로기, 또는 세계관으로부터 독립된 '순수한 관찰'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인간의 눈을 통해 사물을 '본다'는 행위는 단순히 안구 운동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노트북 컴퓨터를 보고 있다 할 때 '본다'는 행위가 단순히 안구 운동에 그친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노트북 컴퓨터를 보고 노트북 컴퓨터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이러이러한 모양을 한 것은 노트북 컴퓨터이다' 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끓는 주전자를 보고 '그 주전자는 뜨겁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들은 '관찰'이라는 행위는 지식(또는 이론)의존적이며 경험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 주며, 이러한 경험이나 기존 지식으로부터 분리된 완전히 순수한 관찰을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제 사회에서 여성 문제에 관한한 남성의 판단이나 지식이 왜곡될 수밖에 없고, 여성에 비해 덜 객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여성주의에서 가치중립성이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는 이유는 보다 객관적으로 사물을 판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치를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아무의 입장에도 서지 않는 다는 것은 곧 가부장적, 남성의 입장에 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 실증주의 과학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도 위치하지 않는 지식'(knowledge from nowhere)이 가장 과학적이고 정당하다고 보지만 이러한 지식은 사실상 '객관성'으로 포장된 허구라고 보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여성주의에서는 여성주의적 가치 개입을 통해서 보다 객관적인 지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여성으로서의 억압 경험, 자의식 또는 감성을 억제한 상태에서 본다면 여성의 경험을 읽어내고 분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한 연구자가 아내 구타, 또는 성폭력에 관한 분석을 한다고 하자.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통념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는다',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피해의 직접 경험이 없거나 피해 여성의 경험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한 연구자는 이러한 통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통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관찰하기 어려우며, 그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지식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불변하는 개념이 아니며 그것이 만들어진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떠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이 어떠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 하에서 만들어졌는가를 분명히 인지하는 것, 그리고 그 지식을 만든 주체가 어떠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지식을 구성하였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모든 지식은 특정한 이해와 관점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라 할 때 오히려 그 지식 생산자의 가치관과 관점, 서있는 위치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객관성'을 제고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과 소수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 <일다>의 기사들을 객관성과 공정성을 표면적으로 표방한, 그러나 수많은 이해와 편견을 담고 있는 주류 언론들의 기사에 비해 더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

'객관성'과 '공정성'은 지식 생산자와 생산 대상, 즉 기자와 취재 대상과의 분리를 통해서 확보되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자면 완전한 객관성과 공정성은 존재하지 않

는다. 그럼에도 마치 그러한 객관성이 가능한 것처럼 표방하는 주류 저널리즘의 주장은 일종의 지적 기만이며, 그들이 주장하는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남성 중심적 지배이데올로기를 은폐하기 위한 도구라 할 수 있다.

아래로부터의 여성의 역사 쓰r기

<일다>는 여성의 역사를 새롭게 쓰기, 아래로부터의 역사 쓰기를 시도해 왔다. 정치인이나 기업인, 이름 있는 지식인 등 엘리뜨 여성보다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름 없는 여성들의 삶에 주목한다. 그들의 일상과 그들의 기쁨과 고통, 그들의 희망과 절망의 이야기를 쓴다. <일다>의 인터뷰 기사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여성의 역사쓰기는 다른 주류 언론, 여성 언론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여성언론으로 알려진 여성신문이나 우먼타임즈가 주목해온 여성들, 빈번하게 각 신문의 주요 지면을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진 인물들은 정치계, 경제계, 학계, 재계의 엘리뜨 여성들이거나 남성들이다. 사회적 지위로 많은 권력을 지닌 이들 지배층 여성들은 여성계를 '이끄는' 주요한 인물들로 기록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남성들의 역사쓰기, 위로부터의 역사 쓰기의 변형에 가깝다.

진정한 의미의 여성주의 기록, 여성사는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의미한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어떠한 사회적 지위도 가지지 못한, 이방인의 자리에 있는 여성들, 여성들 가운데 가장 주변화된 여성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새로운 역사쓰기는 시작한다. 이름 없는 여성들의 비공식적인 삶, 구체적인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여성문제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부각시킬 필요하다.

여성주의적 실천성과 일다의 힘

<일다>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온 여성운동계에 대한 비판과 여성정치세력화의 방향에 대한 기사들은 구체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 기사들은 단순히 '객관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일다>의 이러한 실천적 기사쓰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용기'다. <일다>가 두려워 하는 것은 주류 여성운동계도 아니고 여성계 지도층도 아니고 거대 자본

이나 정치 권력은 더더욱 아닌 듯 보인다. <일다>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성들 가운데 가장 주변화된, 여성들로부터도 잊혀지고 배제된 사람들-- 정상가족의 범주에서 배제된 , 이성애적 규범의 틀 밖에 있는 여성들,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소외된 장애 여성들...., 그리고 이름없는 수많은 독자들의 시선에서 멀어지는 것, 그들의 신뢰를 잃는 것으로 읽힌다.

역설적이게도 <일다>의 힘은 비주류 언론이라는 사실에서 온다. 중심의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 훨씬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중심과 주류에 속한 자들은 그 사회가 어떻게 소수자와 주변집단들을 소외시키고 배제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사회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놓인 사람들은 중심 권력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그러한 권력이 어떻게 특정 집단을 통제하고 주변화시키는지, 그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 훨씬 더 현실적이고도 객관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그간 주류 언론과 여성 언론들에 의한 여성의 정치세력화 논의, 그리고 여성운동의 방향에 대한 <일다>의 비판 기사들에서 보여준 관점은 다른 매체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이었다. <일다>에서 이러한 기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래로부터의 여성주의 관점'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배제되고 소외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주류 여성운동계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문제제기는 자칫 주요한 취재원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주의 언론으로서 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한 주류 여성운동계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일다>의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그 주류 여성운동단체들이 권력화 되어 있을 경우, 그 넷트웍이 학계와 정계 및 다른 언론계에 까지 형성되어 있을 경우 <일다>의 그러한 비판적 논조는 <일다>의 생존 자체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미 주류 시민운동단체나 권력화 된 비정부 조직이 비주류 언론을 쉽게 '통제'해 왔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최근 한겨레신문사 측으로부터 <일다> 일주년 기념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조이여울 편집장은 "<일다>의 성장보다 여성운동의 성장, 여성들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일다>가 자기 조직, 자기 매체의 생

존과 성장보다 여성운동과 여성주의를 더 것보다 우선시할 때 <일다>는 그 어떤 권력도 통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된다.

언제든지 사라질 준비가 되어 있는 매체. 자기 조직의 생존과 성장보다 여성운동과 여성들이 신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은 없다. 자기 조직을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정도의 용기. 이 용기는 <일다>가 여성주의적 관점을 계속 가지고 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다>의 태도는 <일다>가 생산해내는 기사보다 더 많은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독자들은 기사의 내용을 통해서 만이 아니라 그 기사를 만들어 내는 방식과 과정, 그리고 <일다>가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서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다. 주류 여성운동계를 향해 두려움 없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일다>의 태도, 주류 언론으로부터 소외당할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관점 있는 목소리를 내는 <일다>의 방향을 보면서 독자들은 용기를 읽고, 변화에의 의지와 저항의 방법을 배우게 된다.

'진보'와 <일다>의 '접합적 여성주의'(?)의 가능성

이종태 /월간 <말> 편집부장

*우선 이 글에서 사용하는 '진보'의 개념은 '국가·민족·계급' 등 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선호 혹은 환원주의를 의미함. 또한 여성주의 내지 페미니즘도 'reality' 차원이 아니라 필자 혹은 '진보'적 남성들에게 '비친' '이미지'를 중심으로 논한 것임을 미리 밝혀둠.

한국의 여성운동

* 한국 페미니즘이 진보진영의 화두로 떠오른 계기 : '100인위의 운동사회 성폭력 사례 실명 발표'. 페미니즘이 개혁·진보진영을 타격하면서 운동사회의 시민권을 획득한 것엔 이유가 있다고 생각됨. 반수구만 표방하는 경우 개혁·진보진영에 흡수가 불가피했지만, 개혁·진보를 비판하는 입장에 섰기에 비교적 독자적인 세력 형성이 가능했다고 생각됨.

* 진보에게 비친 페미니즘 : 자유주의 혹은 반국가주의·반민족주의·반민중주의, '여성 환원주의'.(피해자 중심주의, '무작정' 정계진출론) 진보적 인사들로부터 '중상층 엘리트 운동'이라는 혹평이 나오는 이유는 이 때문.

* 김규항에 대한 조이여울의 비판은 '일부 여성 인사들의 문제를 여성운동계 전체의 문제로 돌린 점'으로 보임. 그러나 '일부 여성 인사' 혹은 '일부 여성운동계'로 제한한다면 '중산층 운동'이란 비판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더욱이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운동은 분명히 분화되고 있으며 이중엔 '중산층'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이는 시민단체나 시민운동도 존재함.

* 그러나 이 모든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성 환원주의'도 운동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시민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점은 명확함. 그것은 마치 국가·민족·민중 환원주의들이 그 엄청난 억압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운동사회 속에서 나름대로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있는 것과 동일함. 무엇보다 '여성 환원주의'가 민중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득권을 공격하는 운동'이란 점은 평가되어야 함. '여성'운동으로의 의의를 가지는 것임.

* 필자 역시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혁명만이 사회를 바꿀 수 있고, 계급이 해방될 때 곧 여성이 해방된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음. 이 같은 변혁이 설사 성공한다 할지라도 여성에 대한 억압구조는 온존될 것임. 오히려 의제를 '계급 문제와 여성 문

제를 어떻게 접속시킬 것인가'로 설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 여성에 대한 억압 중 일부는 분명히 자본주의적 억압과 연관되어 있음.

* 필자가 <일다>에게 느끼는 것은 필진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성 환원주의'를 비판하고 여성운동과 다른 부문 운동을 접속시킴과 동시에 운동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임.

여성정치세력화 비판 - '여성 환원론'적 실천에 대한 공격

* 최근 '현정은 지키기' '박근혜 지지론' 등은 대표적인 '여성 환원주의'적 실천이라고 볼 수 있음. 일다는 다음과 같이 이를 맹공함.

-"여성계 인사들의 이런 행보는 무엇보다 여성운동이 '위'만 바라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맞닥뜨리게 하고 있다."(문이정민)
-"박근혜를 사유하게 만든 것은... 갑작스럽게 '여성정치세력화'에 눈을 돌린 진보언론(말, 씨네21, 한겨레)의 공헌이다. 또한 '페미니스트들이 그렇다'고 우겨댄 진보남성들의 역할도 컸다. 그들은 제멋대로 '여성정치세력화'를 정의해버리곤 그 책임을 여성주의 진영으로 떠넘겼다. 여성주의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만든 여론의 뒤치닥거리를 하게 했다."(조이여울)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당을 불문하고 여성들이 정치계에 많이 진출하는 것이 아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안기부나 보수당에 들어갔던 지난 날의 진보인사들이 모두 호랑이가 되었다는 경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윤하)
-"여성이란 이유로 당을 불문하고 사유할 수 없으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연대할 수도 없다. 이는 자매애가 아니라 패거리 짓기"(윤하)

*이와 함께 일다는 여성운동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방법론과 연대의 대상을 제시하고 있음.

-"여성운동은 '낮은 시선'으로 볼 때 멀리, 보다 넓게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럴 때 힘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여성운동이 힘을 가졌다면 그것은 대중여성들의 일상 속에서 이슈를 잡아내며 늘 그들과 함께 호흡했기 때문이다."(문이정민)

-"진정 '민주주의와 여성' '역사와 여성' '국민과 여성'은 별개인 듯이 보인다. 여성운동이 민주화 운동과 궤를 같이 했듯이, 여성정치세력화 역시 민주주의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조이여울)

-"여성주의 진영이 함께 어깨를 걸어야 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색채를 불문한 여성들이 아니다. 가부장주의 남성권력의 부정과 폐해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우리가 진정으로 연대해야할 세력이다.... 일부 여성운동 세력은 진정한 여성해방운동이 다른 소수 집단의 여성들은 물론 가부장제 하에서 차별받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아울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다른 소수 집단의 정치세력화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며, 가부장제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그룹들과의 연대를 통해 나아갈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윤하)

여성 문제를 역사, 민주주의, 국민, 민족(조이여울의 '유관순') 등의 범주와 연관시키고 또한 다른 소수 집단과의 연대를 사고하는 것은 기존 여성주의와 대비되는 일다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음.('진보'와 페미니즘의 '접합적' 연대의 가능성) 이 같은 성향은 북한(여성)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각에서 뚜렷하게 나타남. 즉, <일다>가 하필 북한을 주요 소재 중 하나로 삼은 것은 '일다적' 세계관의 실천으로 볼 수 있음.

일다의 북한 인권 비판

*기존 진보진영이 북한 문제를 다루지 못한(않은) 것은 그들의 세계관(계급, 국가, 민족 중심 혹은 환원론)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북한인권이 보이지 않는 것임. 그래서 '북한 이주민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등의 발뺌, 심지어 탈북자의 윤리를 문제삼는 금수 같은 경우도 있었음. 이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 인권에 대한 의제를 사회화하는 데 여성적·소수자적 관점은 이후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할 것임.

최이윤정의 '북한 인권, 진보진영이 더 보수적... 왜 실태를 보려 하지 않는가' 제하의 기사는 이런 점을 잘 보여주고 있음.

-"우리 사회 진보진영의 단체들은 이제까지 북한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대개 그것이 허용됐던 이유는 북한 문제에 대해 '알 수 없다'는 것, '모른다'는 점이다. 또한 이 문제가 미국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그러나 과연 침묵하는 것이 정당한가."

-"북한 인권 문제 역시 각 진영의 전략적 차원에서 언급되어 왔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자리잡은 한국에서 보수적 사회단체의 경우 북 정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로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거론했다. 한편 진보진영 쪽은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정치적 악용 가능성'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거의 침묵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김윤은미)

*특히 민최지원의 '탈북여성의 난민자격 가능성'은 그 문제제기 자체의 신선함(인신매매, 강제결혼, 강제낙태 등의 '젠더박해'를 난민자격과 연관시킨 점)은 자치해두더라도 여성문제를 민족과 국가 차원의 집단성과 접합시킨 매우 의미 있는 시도임.

-"북한 사회의 가정폭력, 성폭력, 강제결혼 등이 '박해'임을 증명하려면 국가보호가 실패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탈북자들의 공통된 증언은 북한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제도나 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보호 실패'를 의미한다. 성폭력에 대한 제도화된 규제를 북한에서 마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집행단계에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가 무능에 의한 보호의 실패로 볼 수 있다."

'일다' 속에 성적 소수자의 물결이 일다!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부대표, 웹진 <eBUDDY> 편집위원

사실 성적소수자의 입장에서 <일다>를 평가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과 격려로 일색해도 결코 '과장'이 되지는 않을 성싶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 한국의 그 어떤 언론 매체도 성적 소수자에 대한 기사를 이토록 줄기차게 친화적이고 옹호적으로 제공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물론 동성애 전문지 <BUDDY>와 웹진 <eBUDDY>를 제외하고) 두 번째 이유는 기사가 단순한 '관찰'이나 '감상문 쓰기' 그리고 대중들을 깜짝 놀라게 할 '특종 잡기'식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여타의 매체들이 성적소수자나 장애인 문제를 다룰 때 너무나도 쉽게 빠져버리는 '타자화 시키기(항상 우리와 그들로 나누어 쓰는)' 혹은 '온정주의(우리는 이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와 같은 함정을 잘 피해나갔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일다>가 성적소수자에 관한 기사 외에도 여성주의 저널로서 독자적이고 독립적이며 독특한 시각을 견지한 좋은 기사들을 내는 곳으로서의 자리매김도 확실했기 때문이다.

<일다>의 시도는 신선했고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많이 거두었으며 더군다나 창간 1년임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런 까닭에 필자는 눈에 불을 켜고 '옥에 티'를 찾아내려 애쓰며 이 글을 작성해야 했다. <일다>가 더욱 발전하는데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며 몇 가지 바람들을 적어보고자 한다.

성적소수자 내부로 좀 더 다가서길

-지난 1년간의 기사를 보면 외국의 관련 기사나 글을 토대로 작성한 기사가 많다. 이것은 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는 외국의 동향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정보 제공처로서의 역할도 가진다. 하지만, 여기에 비해 보다 발넓고 심층적인 국내 분석 및 발굴 기사는 적은 편이다.

-<일다>는 언론 매체가 성적소수자에 관한 기사를 쓰려면 어떠해야 한다는 모범적이고 선구적인 예를 제시하는 역할도 가능하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 모색과 개발을 기대한다.

여성주의와 성적소수자를 보다 정면으로 만나게 하길

-성적소수자에게 여성주의가 어떤 의미와 역할, 작동을 할 수 있는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동성애자 인권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성 운동과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연대 지점은 어디일지 등에 대한 제언, 비판, 분석, 고민을 담은 기사는 부족하다.

-<일다>내의 다른 기사들과 비교해본다면 언뜻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이유로 성적소수자를 다루는 관점에는 문제가 없지만 성적소수자 내의 차이 문제에는 덜 민감하거나 보다 '특별한' <일다>만의 관점이 드러나지 않는 듯 하다.

-소수자의 시선과 여성주의가 어떻게 만나는가. 자칫 소외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치부됐던 성적소수자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었다는 것이 <일다>의 중요한 방향임을 밝히고 있다. 소외라든지 중요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련 기사를 낸다는 것만으로도 진일보 했다고 충분히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일다>에서 말하는 바처럼 여성주의가 인권임을 알리고, 페미니즘의 영역을 보다 넓게 바라보도록 했던 시도로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혹은 과격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성소수자'란 카테고리의 불완전성

-'성소수자'란 코너 내의 61개의 기사들을 보면 그 성격들이 다소 제각각이다. 칼럼, 리뷰, 독자 고발글, 취재기사 등이 섞여 있으며, 동성애에 관한 것이라도 어떤 것은 문화읽기나 이슈 등에 들어가고 어떤 것은 성소수자 코너로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그 기준의 애매모호함이 남게 된다. 이것은 '성소수자'란 주제로 나눈 것이 형식으로 나눈 타 분류 기준과의 충돌 때문일 터이다. 그러나 이런 충돌은 <일다>에서만 보이는 것은 아니며, 모두에게 있어 지난한 고민거리 중의 하나다.

-다만, '성소수자'가 특화된 코너라면 다루는 범위가 보다 넓어지고 보다 예리한 시각의 분석기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호주제, 건강가정기본법, 장애인의 인권, 가족과 결혼 등을 비롯해 소위 '일반적인 사회문제'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소수자의 시선으로 분석해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는 것 등.

-'청소년과 동성애'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접근한 다양한 기사가 꾸준히 실렸다는 점, 호모포비아에 대한 시리즈 기사 등은 매우 주목할만한 <일다>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일다>의 이런 집중적인 관심과 활동을 바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첫 한 해를 건강하게 잘 보낸 <일다>에 지지와 앞으로의 발전에 한껏 부푼 낙관적인 기대를 보낸다.

<일다>에 가면 소수자의 시선을 배운다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일다>에 가면 소수자의 시선을 배운다

- 소수자의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인권전문매체를 표방하고 출발한 <일다>는 지난 1년 동안 기존 주류언론은 물론 대안언론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고 주변적으로 다루어졌던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해 왔다. 여성 내부의 또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사회적으로 비(非)가시화됐던 동성애자, 장애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청소년들의 문제를 드러내온 것은 <일다>만의 독특한 기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중층적 억압을 받고 있는 동성애자 내부의 레즈비언, 장애인 내부의 장애여성, 미등록 이주노동자 내부의 여성 이주노동자, 노인 내부의 여성 노인, 성매매 피해여성, 성폭력 생존자, 국제결혼가정의 여성, 10대 여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도 <일다>를 주목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다.

- <일다>는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어 '사적'이고 '소소한' 이야기로만 치부되는 성폭력과 차별, 성별분업 등의 문제들을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제기하는 데 앞장 서 왔다. 특히 '공개수배', '사진 칼럼', '일다 카툰' 코너는 소수자의 시선과 감수성으로 일상에 들어와 있는 차별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다는 점에서 반차별의 감수성을 일깨우는 좋은 교육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기자회견이나 토론회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중 있는 발굴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일다가 기존 매체들이 비추지 못한 음지의 인권문제들, 운동의 의제로도 제대로 상정되지 못한 문제들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여성 문제, 동성간 강간 문제, 낭만화된 스토킹 문제,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대안적 접근(반차별법, 동성간 결합 해외 사례 등), 가족 안의 폭력, 병원 내 환자의 권리, 무력분쟁 하의 여성들의 경험, 군사화된 사회 내의 여성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 <일다>는 또한 소수자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도 제시해 왔다. 소수자의 문제를 찬반에 부쳐서는 안 되는 이유, 여성부 성희롱 예방교육의 접근 방식이 가진 문제점, 가족주의적 복지정책이 가진 문제점, '이승연 파문'의 본질, 성매매방지법의 한계 등을 잘 지적해 왔다고 본다.

<일다>의 시선을 기다리는 곳들

- <일다>는 소수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인권문제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이 없었던 인권', '소수자가 없었던 인권' 개념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인권 개념의 재구성 필요성과 그 대안도 제시해 왔다. 난민의 개념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의 필요성, '집단학살'이라는 개념으로는 드러나지 못했던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환경권·평화권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새만금과 여성들의 갯살림, 이라크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등)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다>가 들여다보지 못한 인권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다.

- 소수자들의 인권문제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일하는 장애여성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여성, 장애여성과 빈곤(최옥란 씨가 죽음으로 제기하는 문제), 장애여성의 자녀 양육,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손님에게 성희롱 당하는 서비스업 여성노동자, 홈리스 여성, 여성 재소자 문제 등이 여전히 <일다>의 시선을 기다리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들과 같은 인권 현안을 다루더라도 <일다>의 여성주의적 시각, 소수자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분석했을 때만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새로운 문제 혹은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되는 문제들을 제기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것이야말로 독자들이 <일다>에게 기대하는, <일다>만의 독특한 시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일다>에는 실업자 노조 가입 문제, 사회보호법, 테러방지법, 파견노동, 감시, 네이스(NEIS), 노동인권탄압 등의 의제들이 기사로 다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일다>만의 독자적 분석이 담겨있지는 않으며 제한적인 인권 영역만이 다루어진 상태다. 이는 <일다>가 갓 돌을 맞이한 상황 때문이겠지만, 앞으로 <일다>가 개척해야 할 영역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 예를 들어 고용허가제의 경우 작업장 이동의 권리 박탈은 남녀 이주노동자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직장 내 성폭력 문제와 연결시키는 양혜우 씨의 글이 실린 적이 있기는 하지만 좀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알몸수색에 대한 문제제기가 경찰의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의 변화로 이어진 것처럼, 형사소송절차 과정에서 소수자들이 당면하게 되는 인권문제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있다. 또 다른 예로 <네트워커> 3월호 특집기사처럼 정보인권과 여성, 프라이버시권과 여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정부가 호시탐탐 도입 시기를 엿보고 있는 전자건강카드의 경우, 여성의 낙태나 질병의 경험이 고스란히 집적되고 공개될 위험이 높으며, 지난해 네이스(NEIS) 반대 투쟁에 있어서도 장애아동의 민감한 정보들이 집적·

유출될 우려가 있었다. 기존 인권운동이 다루어왔던 의제들 가운데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 문제들을 살피고 제기하는 <일다>가 되기를 바란다.

- 나아가 소수자의 시선으로 기존 인권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재구성을 시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서 낙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 장애를 가진 태아나 여아를 낙태하는 문제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은 장애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하나, 인권체계 내에서 정치적 고문·박해와 여성에 대한 폭력(아내폭력)이 다루어지는 방식의 불균등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시론(試論)들을 <일다>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독자들이 말하는 <일다>

문이정민/여성주의 저널 <일다> 기자

'관점'의 일관성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관점을 잃지 않는 모습이 든든하고, 그것이 <일다>가 여타 언론들과 다른 점이다. 그리고 살길이다. "

"<일다> 기사들이 타 매체에 비해 특색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주의나 여성문제를 다른 사회문제나 특히 인권문제와 별개의 것으로만 보지 않는 것이 독특하다고 느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에 대한 일차적인 평가는 일관된 '관점'이다. 기타 언론들이 지면, 혹은 시기마다 상반된 관점의 글을 싣는 반면 <일다>가 꾸준히 하나의 관점으로 통일성을 철저히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다>가 애초에 '누구나 기자형식'을 지향했으나 '오마이뉴스'처럼 모든 기사를 띄우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설정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독자들은 각각의 기사를 관통하는 <일다>만의 '색깔'에 많은 지지를 표시했다.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무엇이냐 하는 걸 가지고 논란이 많은 것 같다. <일다>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라는 말을 무척 많이 본 기억이 난다. 어쩌면 이 분야 논의로는 <일다>만이 희망이라는 생각도 든다."

여성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의나 여성계 행보에 대해, "화가났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독자들의 답답증을 해소할 만한 설득과 비판의 언어를 꾸준히 제시한 것은 <일다>의 중요한 역할로 각인됐다.

소수자 시선으로 대한 접근

"<일다>에서 제일 특별한 코너는 성 소수자의 문제를 다루는 곳이다. 여성과 소수자의 시선을 견지한다는 취지를 잘 확인할 수 있는 코너라는 생각이 든다. 다른 매체라면 꿈도 꿔보지 못할 일일 거라고 예전에 한 성 소수자가 얘기하는 걸 들은 적 있다. 기사들도 처음 접하는 내용이 많고 흥미롭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는 기존 언론들, 즉 남성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은 소수자 문제(성차별, 성적소수자 차별, 북한여성인권의 문제, 평화문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문화

읽기 등)를 중심적으로 다루는 유일한 공간이다. 특히나 소수자 문제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본다."

"장애여성에 대한 기사를 <일다>에서 많이 다뤄준 것이 좋았다. '끼워 넣기' 식이 아니라서 더 많이 공감하게 되는 기사들이었다."

<일다>는 애초에 성 소수자와 장애여성의 존재를 '당연하게' 전제하고 다양한 이슈들을 수면위로 띄우겠다는 기획의도를 갖고 있었다. '동성애가 옳으냐, 아니냐'를 논쟁하고 있는 언론들 속에서 이들의 존재를 당연하게 전제,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의 이슈들을 던지는 <일다>는 눈에 띌 수 밖에 없었다. 사회 속에 '가려진 존재'를 자연스레 드러내고, 인권의 측면에서 실제적인 문제와 이슈를 건드린 것에 대한 독자들의 흥미와 긍정적 평가를 도출할 수 있었다.

기사의 발굴, 취재력 부족

"완성도가 부족한 기사들이 보이고, 취재나 정보수집이 부족한 채 주장만 나열하는 경우가 있다. '주장'은 유의미하지만 여성주의적 관점에 근거한 논리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성의 있는 취재와 사실 전달, 풍부한 논리를 근거로 한 기사들이 요구된다."

사실 이런 비판은 <일다>가 피해갈 수 없는 지점이다. <일다>의 인력구조, 운영체계 속에서 '풍부한 취재'를 바탕으로 한 기사작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 가까이 있을 때 문제가 보이고, 기사꺼리가 나온다는 당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다>가 그만한 역할들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 안에서 <일다>의 입지가 언론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자연히 칼럼 식의 기사나 논평 등의 기사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독자들의 평가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풍부하고 깊이 있는' 기사를 생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여성노동문제를 심도 깊게 기획기사화해서 싣는 노력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발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기존 기사에 대한 대응, 비판도 좋지만 발굴도 필요하고, 현재 투쟁하는 사건, 차별소송사건에 대한 관심이나 심층 취재 이런 건 결국 <일다>만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여성노동사안의 경우, '출산율 저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고 근원적인 문제제기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이슈 발굴이나 소송사건에 대한 조망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여성노동'의 문제가 대중여성들의 삶과 가장 가까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상기해볼 때 보다 깊이 있는 관점과 문제제기가 요구되는 것이다.

코너 평가

1) 인터뷰

"일다 인터뷰에선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 특별히 재주 있고 유명한 여성들이 아니지만 풋풋한 삶의 느낌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곳이다."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나이대도 20-30대에 편중돼 있고, 직업이나 경력, 학력 등도 엘리트 층인 것 같아 위화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보다 층을 넓혀 다양한 인물들을 소개해 주기 바란다."

인터뷰 코너는 기존 언론들이 주목했던 '잘 나가는 여성' '유명인'이 아닌 일상에서 만나는 매력적인 여성들의 삶을 보여주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는 <일다>의 특성을 보여주는 코너로 독자들의 호응과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한편 나이와 직업, 지역의 편차가 존재한다는 평가 역시 존재했다. 기획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시야로 인물들을 발굴하고, 취재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2) 공개수배

"성차별적인 언행을 한 사람들을 수배하는 공개수배 코너는 보면, 저런 사람이 있었지, 하고 맞장구를 치게 된다."

일상 속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차별을 고발하는 코너로 열렬한 지지를 받고, 독자들의 참여도 활발한 코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권력이 휘두르는 횡포는 모든 여성들이 숨쉬듯 겪는 문제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관건. 가볍지만, 날카롭게 여성의 삶에 대해 조망하는 코너라는 평가가 많았다.

3) 언론비평

"<일다>의 언론비평은 조중동이나 방송사 외에 진보매체나 여성언론도 대상으로 삼는다.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언론비평을 하는 매체들이 드물기 때문에 <일다>의 언론비평이 더욱 필요한 것 같다. <일다> 언론비평을 보다 보면 언론들이 진짜 성차별적인 기사를 많이 내보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여성운동내의 차이는 명백히 존재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갈등을 선정적으로 이용해 기사를 써대는 남성언론들에 대한 비판 또한 필요하다. 여성계에서 고민하고 운동적으로 해결해가야 할 과제이기도 한데 단지 흥미거리로

보도하는 주류언론에 대한 견제 역시 필요하다."

'언론비평'은 독자들에게 기존 언론의 '숨겨진' 가부장성을 지적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다>가 초기 의도만큼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내부평가도 있었다. 기사 하나하나에 대한 모니터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이슈를 다루는 언론들의 판세를 조망하고, 여성주의적으로 비평하는 거시적인 관점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일다>는 독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언론 비평 팀'을 통해 기존언론에 보다 치밀하게 여성주의적 관점을 들이댈 계획이다. 또 마이너 언론인 <일다>가 힘겹게 제기하는 문제들을 기존 주류 언론이 재탕하거나, 이용, 왜곡하는 데 대해서도 견제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